新湖南誌

전라도 1000년 호남을 바로 세우자 〈27〉

제7부-전통 정원과 건축

③ 나주목 관아와 향교

나주목 관아와 향교가 위치한 나주는 호남의 곡창인 나주평야를 넉넉하게 품고 있다. 전라도라는 이름은 '전주(全州)'와 '나주(羅州)'의 머리글자를 따서 지었다는 점에서 나주는 바로 고려 성종 때 목(牧)으로 지정 받은 후에 1000여년 동안 남도의 행정·경제·군사·문화 핵심이었다. 나주는 내년 전라도 천년을 대표하는 남도의 '천년 목사 고을'이다. 나주목 관아와 향교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83호다. 지난 2007년 7월 지정돼 꼭 10년이 됐다. 문화재청은 나주목 관아와 향교에 대해 "나주 관아의 위치와 건물 구성은 신증동국여지승람, 금성읍지, 여지도, 나주목지도를 비롯한 고지도 등에서 비교적 소상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현존하는 관아 건물이 조선시대 지방통치 중심지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객사 등의 발굴 성과와 옛 사료들과 더불어 중요한 구실을 하는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시대 교육·행정·건축의 보고…미래 유산으로 재창조해야

조성식
한국학호남진흥원설립추진위 기획협력처장

문화재청은 나주 향교의 국가지정문화재 가치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나주 향교는 "평지에 들어선 전묘후학의 배치 형태를 띠고 있는 전형적인 예"라고 밝히고 특히 보물 제394호로 지정되어 있는 대성전은 "그 규모가 대단히 웅장할 뿐 아니라 조선후기 향교건축을 대표할 수 있어 건축학적 가치가 있다"고 했다. 또 조선시대 교육시설로서는 "성균관 다음이라고까지 지칭할 정도로 교육과 제사의 고유 기능을 간직하고 있는 규모가 큰 향교"로서 "보존가치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나주는 일제강점기 등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조선시대 옛 고을의 모습은 많이 변했다. 그러나 나주목 관아와 향교는 조선시대 관아와 향교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전통유산이자 조선시대 지방행정 및 교육기관의 입지조건과 건축적 양식이 담겨 있는 소중한 전통유산으로 남아 있다.

관아의 핵심공간으로는 각 행정단위 수령이 집무를 보던 동헌이 있고 수령이 살던 내아가 있다. 외국 사신이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관리들이 숙소로 사용하던 객사가 있다.

한양 도성에 4대문이 있었던 것처럼 옛고을 나주목에도 동점문(東漸門), 서성문(西城門), 남고문(南顧門), 북망문(北望門) 같이 동서남북 방향으로 4대문이 있었다. 나주목 관아의 규모와 위상은 전국에서 최고였다. 동헌이나 내아나 객사는 큰 위용을 자랑하였지만 일제 강점기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이런 전통유산들이 훼손되었거나 망실되었다.

이러한 관아와 더불어 각 고을에는 현재 공립학교의 격에 해당하는 향교가 존속해왔다. 나주 향교는 보물 제394호인 대성전을 비롯해 명륜당과 동·서재가 있는데 다른 향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11칸의 큰 규모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향교의 배치는 조선시대의 향교건축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강학 공간이 뒤에 있고, 제사 공간이 앞에 있는 전묘후학의 형태다.

나주목 관아는 국가 사적으로 남다른 의미가 있다. 대부분의 사적이 개별 건축물 위주의 점(點) 단위인 반면, 나주목 관아와 향교는 조선시대 고을의 중요시설인 관아와 향교를 면(面) 단위로 지정됐다. 무엇보다 훼손·망실 되어가는 조선시대 옛 나주목의 중요 건물을 보존·복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또 이를 바탕으로 체험·힐링 교육문화 명소로 활용해갈 수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의미다.

나주목 관아와 나주향교는 나주지역 뿐 아니라 남도의 특색에 맞게 '관아 복원·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관리해야 한다. 나주시, 전남도와 문화재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사적 내 사유지 매입, 발굴 조사, 관아 복원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 같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과거 유산의 재발견, 현재 유산의 재구성, 미래 유산의 재창조라는 기본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면 남도적 특색, 한국적인 가치와 아시아적 가치를 동시에 체험하고 힐링하는 동아시아 전통명소로 조성해갈 수 있을 것이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전통유산의 본향 호남의 웅도 나주를 상징하는 전통공간으로 육성해가는 데는 나주시, 전라남도, 문화재청 뿐 아니라 지역의 전통유산 관계 인물·단체가 상생의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나아가 이런 나주목 관아와 향교의 보존과 체험·힐링은 영산강권 동아시아 문화융합, 문화교류 시대를 맞이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고대 마한문화의 보존, 진흥과 더불어 호남권 전통유산 계승은 물론이요 민족문화의 정체성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중앙에 정청(政廳), 동·서쪽에 부속건물로 구성된 나주 객사.

나주목 관아

4대문 갖춘 전국 최대 규모
고을 수령이 집무 보던 동헌
살림집 내아·손님 묵던 객사
지방통치 중심지 구조 파악 최적

나주 향교

'전묘후학' 전형적인 평지 향교
교육·제사 등 고유 기능 간직
보물 394호 대성전 등 11칸 위용

체험·힐링 교육문화 명소로 활용
남도 특색 맞는 복원·정비 필요

나주목사가 기거하던 살림집 '목사내아'.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집행위원
-'사드철회 성지수호' 원불교 대책위 광주전남교구 집행위원장

전라도 들여다보기

곡성 동리산문과 태안사

김형주

산자수명(山紫水明)의 고장인 곡성은 북동부지역으로 섬진강이 관통하며, 지리산의 수려한 산세가 흘러내려와 전체적으로 산간지대가 발달하고 협소한 분지형태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삼국시대 초기에 전래된 불교는 통일신라말기에 화려한 불교문화를 꽃피웠는데, 경전을 중시하는 교종 위주의 5교(五敎)와 주관적 사유를 강조하는 당(唐)에서 유입된 선종 교리의 9산(九山)이 확립되었다. 선문(禪門)구산 가운데 호남지역에서는 곡성의 동리산문 태안사와 장흥의 가지산문 보림사, 남원 실상산문의 실상사 등 3곳이 속하였다.

동리산문(桐裏山門)은 신라 문성왕 때인 839년 혜철(惠哲)선사가 지금의 곡성 죽곡면 동리산에 태안사(泰安寺)를 설립하면서 개산했다. 이에 앞서 742년 3명의 신승(神僧)이 대안사(大安寺)를 창건함으로써 사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혜철은 당나라에 건너가 서당지장(西堂地藏) 스님에게서 수학한 후 귀국하여 태안사에서 선법을 펼쳤다. 통일신라 말기의 고승이며 음양학에 기초한 풍수지리설의 시조로 불리는 도선(道詵 : 827~898) 그리고 여(如) 선사와 함께 동리산문의 3대 조사(祖師)로 일컬어진다.

태안사는 조계종 제19교구 본사인 화엄사에 소속된 사찰로 고려초기 광자대사(廣慈大師) 윤다(允多)가 중창하여 132칸의 당우를 지어 동리산문의 중심 사찰로 우뚝 서게 되었다. 고려 초기까지는 송광사·화엄사 등 전라도 대부분의 사찰이 태안사의 산하에 있었으나, 고려 중기에 송광사가 수선(修禪)의 본사로 독립되어 떨어져나감에 따라 사찰의 권한이 축소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효령(孝寧)대군의 원당(願堂)이 되어 조정의 지원을 받았다. 1683년 정심(定心)이 중창하였고 1737년에는 능파각(凌波閣)을 세웠다. 이후 200여년 동안 평온한 시대를 누리다가 6·25동란을 맞이하여 능파각·일주문을 제외하고 대웅전을 비롯한 15채의 건물이 소실되는 참화를 당하였으나 해방 이래 지속적인 중창불사로 옛 모습을 거의 회복하였다. 현재 복원된 당우로는 1969년 재건한 대웅전을 비롯하여 천불보전·만세루·해회당(海會堂)·선원 등이 있다.

주요 문화재로는 혜철국사의 부도인 보물 제273호의 적인선사 조륜청정탑(寂忍禪師照輪淸淨塔), 윤다의 부도인 보물 제274호의 광자대사탑(廣慈大師塔), 보물 제275호인 광자대사비, 보물 제956호인 대바라,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4호인 천순명동종 등이 있다. 1447년 효령대군 발원으로 만들어진 대바라는 둘레 3m로서 우리나라 최대의 것이다. 천순명동종은 1465년에서 1475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공예수법이 뛰어나다. 능파각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82호, 일주문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83호로 지정되어 있다.

유서 깊은 천년고찰 태안사가 1950년 한국동란 때에 국군과 좌익(빨치산) 간의 치열한 전투의 장으로 탈바꿈한 것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가슴 아픈 역사를 털어내고, 불구대천의 원수라도 관용하라 설파한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정신이 구현되는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간구해 본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실장〉

내 집 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 정식

알찬 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영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광주 1등 맛집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
www.geumsoojang.com
예약 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